

북한 장애인의 삶과 특수교육에 대한 북한이탈학생들의 경험과 인식 연구*

안 상 권**

국립특수교육원

홍 정 숙***

대구대학교

《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학생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북한 장애인의 삶과 특수교육에 대한 경험과 인식에 대해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 장애인의 삶과 특수교육의 단면을 살펴보고, 특수교육 분야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관점에서 방향성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면담을 통해 분석된 코드는 24개의 의미단위와 8개의 하위범주, 4개의 상위범주로 분류되었다. 4개의 상위범주는 '장애인의 실태', '장애 발생 원인', '장애인의 생활상과 지원정책', '북한의 특수교육'이었으며, 이 요인들이 가지는 의미를 제시하고 그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북한 장애인, 북한 특수교육, 북한이탈학생, 통일 후 특수교육

* 본 논문은 2016년 특수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제 1저자, 국립특수교육원 연구사, 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과 박사과정(ask302@hanmail.net)

*** 교신저자,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jshong@daegu.ac.kr)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통일은 분단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염원이자 역사적 과제이다(김병하, 2011). 현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통일대박론’, ‘통일한반도’ 등의 용어들은(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2014. 1. 6; 매일경제, 2015. 1. 23; 드레스덴 선언문, 2014. 3. 28) 오늘날 통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북한의 사회보장 제도를 연구해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통일 사회보장 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KBS 뉴스, 2015. 07. 12.) 통일연구원은 남북통합연구센터 및 통일정책연구실을 구축하여 정치, 경제, 교육, 과학, 기술, 교통, 보건의료, 법률 등의 많은 분야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동아일보, 2014. 1. 22.). 또한 법무부는 통일 법제데이터베이스(www.unilaw.go.kr)를 운영 중에 있으며, 통계청은 북한통계 전용 홈페이지(<http://kosis.kr/bukhan/index.jsp>)를 2009년부터 운영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일에 대한 관심은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일반교육 분야에 있어 남·북한 통일을 대비하는 연구들은 이미 1990년대부터 정책연구를 통해 수행되어 왔다(곽병선 외, 1998; 김정원 외, 2014; 김정원 외, 2015; 김태완 외, 1991; 박재운 외, 1992; 오기성 외, 2008; 윤종혁 외, 2006; 윤종혁 외, 2007; 윤종혁 외, 2008; 이윤진, 2014; 최영표 외, 1993; 한만길 외, 1997; 한만길 외, 1998; 한만길 외, 2012). 그러나 특수교육의 관점에서 통일에 대비하는 정책연구 및 학술연구들은 현재까지 활발히 시도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연구들만 소수로 존재할 뿐이다(김동일, 배성직, 2001; 김동일, 이태수, 2007; 김동일, 이태수, 최종근, 2005; 김형재, 2009).

선행연구들은 북한 자료에 대한 접근과 정보 수집의 곤란 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법률이나 교육과정, 북한 특수교육의 개관적인 체계 등에 대해 제시한 점에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주로 북한 정부에서 발간한 문서에 근거한 탐색 또는 비교로 북한의 장애인과 특수교육에 대한 정보의 구체성 면에서는 그 내용이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수교육의 본질적 토대가 되는 북한의 장애인식과 장애인의 삶, 그리고 특수교육의 실태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획득함으로써 특수교육 분야에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과거 북한에 거주하다가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학생들을

연구참여자로 하는 질적연구를 실시함으로써 그들이 북한에서 경험한 장애인의 삶과 특수교육이 어떠한지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북한과의 접촉이 보편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오늘날, 북한이탈학생들을 연구참여자로 한 연구는 구체적인 북한의 상황을 확인하는데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2014년 TV 방송에서 의사 출신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장애아동이 태어날 경우, 부모와 의사들이 장애아동을 엮어 나무 밑에 묻어버린다는 증언과 함께 그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다(MBN 황금알, 2014. 3. 3.). 이는 김석향(2011)의 연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를 엮어 숨이 끊어질 때까지 방치하거나 버린다’는 북한이탈주민과의 면담내용과 동일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북한 내부의 이야기를 통해 북한 장애인이 처한 삶과 특수교육의 실태를 이해하고 관련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선행연구(김동일, 배성직, 2001; 김동일, 이태수, 2007; 김동일, 이태수, 최종근, 2005)에서 제기된 후속연구의 필요성, 즉 북한 내부의 실제적 모습을 조명하는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연구로서의 의의 또한 갖고 있다.

2. 연구과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과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북한이탈학생들이 경험하고 인식한 북한 장애인의 삶은 어떠한가?

둘째, 북한이탈학생들이 경험하고 인식한 북한 특수교육의 현황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분단 체제 하에 있는 남·북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이나 장애인을 연구참여자로 삼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 학생들을 연구참여자로 하여 그들이 경험한 북한 장애인의 삶과 특수교육 관련 인식들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질적 연구를 통한 북한이탈학생의 경험과 인식 연구는 연구

현장(북한)에 속해 있었던 ‘타인들(북한이탈학생)’의 경험을 통해 연구현장(북한)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Seidman, 2009).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첫째 북한에서 학교 교육의 경험이 있는 자, 둘째 가급적 최근에 한국에 도착하여 북한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자로 연구참여자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연구참여자 섭외를 위해 서울, 경기, 충청 지역에 있는 북한이탈학생 교육기관을 방문 또는 전화로 접촉하여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진행의 가능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들 기관에는 초등학생부터 성인기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의 북한이탈학생들이 있어 본 연구의 취지에 적합한 연구참여자 섭외가 용이할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접촉 결과 두 기관에서는 기관 방침 및 학생 신변상의 이유로 연구 참여를 거부하였으며, 나머지 한 기관에서는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연구자는 본 연구에 효과적인 연구참여자의 범위를 전달하였고, 해당 기관에서는 교무회의와 학생들의 의사개진을 거쳐 본 연구에 적합한 북한이탈학생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해 주었다. 연구참여자들의 나이는 학령기 이후이나 현재 중,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신변보호를 고려하여 인적사항 일부만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인적 사항

| 연구 참여자 | 성별 | 연령 | 국내 정착시기 | 북한에서의 학력 | 연구 참여자 | 성별 | 연령 | 국내 정착시기 | 북한에서의 학력 |
|--------|----|----|---------|----------|--------|----|----|---------|----------|
| 1 | 여 | 23 | 2011년 | 초등학교 | 5 | 여 | 26 | 2011년 | 중학교 |
| 2 | 여 | 23 | 2013년 | 고등학교 | 6 | 남 | 27 | 2010년 | 고등학교 |
| 3 | 여 | 25 | 2014년 | 중학교 | 7 | 여 | 23 | 2014년 | 고등학교 |
| 4 | 여 | 30 | 2011년 | 초등학교 | 8 | 남 | 26 | 2013년 | 중학교 |

2. 자료 수집

1) 면담지 개발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면담과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면담지를 개발하였다. 먼저 특수교육 관련 면담 연구 중 경험과 인식을 주제로 한 연구(김미선, 박중휘, 2014; 박지연, 김남희, 손유니, 2013; 홍정숙, 김금숙, 2014)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면담 연구(김석향, 2011; 송현진, 진성미, 2015), 장애인관에 대해 탐색한 선행연구(최선희, 이승희, 2008) 등을 분석하여 면담지의 틀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연구문제에 따라 경험과 인식의 두 범주로 나누어 북한 장애인의 삶과 특수교육과 관련된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1차 면담지를 작성한 후 북한이탈학생 1명을 대상으로 예비면담을 실시하였고, 질문의 내용과 면담 방식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이후 연구자 간 협의를 통해 면담에 효과적이지 못한 질문들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일부 질문들을 추가하였다. 수정된 면담지는 <표 2>와 같다.

<표 2> 면담지 구성

| 구분 | 질문 내용 |
|----|---|
| 경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에서 장애인을 보거나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경험한 장애인들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었습니까? - TV나 선전매체 등에서 장애인을 본 적이 있습니까? - 북한에서 특수교육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의미로 알고 계십니까? - 북한에서 장애학생 교육은 어디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 장애인을 위한 국가의 정책에 대해 듣거나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 인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이라 하면 처음 떠오르는 사람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인가요? - 장애인이 되는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 개인적으로 장애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북한 사람들은 장애인들을 어떻게 생각한다고 느끼셨습니까? - 장애인은 어디서,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애인의 교육과 생활은 누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2) 면담 실시

선정된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은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각 면담은 60분에서 9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면담을 실시하기 전 면담참여 의뢰서와 질문지를 참여자에게 전달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진행방법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면담 시작 전 면담참여 윤리동의서와 참여자 배경조사표, 녹취 및 자료 활용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자들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았다.

북한이탈학생이 가질 수 있는 낯선 사람과의 인터뷰에 대한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진행하기 위해(이종규, 2006), 면담 장소는 북한이탈학생에게 익숙한 장소인 학교 내 도서관에서 실시하였으며 간단한 일상이야기를 시작으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본 면담을 시작하였다. 질문지를 참고하여 질문을 하되 연구참여자의 이야기 흐름에 따라 질문을 조절하고 필요 시 ‘북한에서 장애인이 휠체어와 같은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와 같은 새로운 질문을 더하기도 하였다.

3. 자료 분석

면담 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면담 시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구하여 면담내용을 녹음하였다. 녹음도구로는 갤럭시 S6의 녹음기 기능을 이용하였으며, 녹음 중 통화나 메시지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휴대폰을 비행모드로 전환하여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 중 2명은 녹취에 동의하지 않아 면담내용을 기록하였고, 면담이 끝난 당일 연구자가 면담내용을 기억하여 기록내용을 바탕으로 면담내용을 작성하였다. 또한 나머지 6명과의 면담내용은 면담이 끝난 날로 2일 이내에 전사를 완료하여 면담내용의 왜곡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Irving Seidman, 2009). 전사본은 한글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사하였으며 날짜와 면담시간, 연구참여자 그리고 본문 왼쪽에는 문장 줄번호를 각각 기재하여 자료의 추적을 용이하게 하였다. 전사된 자료의 양은 글자크기 11, 줄 간격 160으로 작성하여 A4용지 153쪽이었다.

완성된 전사본은 연속적 비교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s)의 절차에 따라 부호화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의 일치도 검증과 코드북 제작을 위해 효과적으로 진행된 면담의 전사본 1부를 선택하여 연구자 간 독립적으로 면담내용을 분석하고 코딩을 실시하였다. 이후 연구자 간 분석된 코딩자료를 비교, 분석하는 일치도 검증을 실시하고 1차 코드북을 작성하였다. 1차 코드북을 기본으로 하여 나머지 8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며 코드북을 수정·보완하여 최종 코드북을 완성하였다. 최종 코드북에서 분석된 코드는 24개의 의미단위와 8개의 하위범주, 4개의 상위범주이며 자세한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분석 결과

| 상위범주 | 하위범주 | 의미단위 |
|----------------------|--------------------|--|
| 장애인의 실태 | 장애인 현황 | 장애인의 수 |
| | | 장애의 유형 |
| | | 장애인 보조기기 사용 TV 매체 속의 장애인 |
| | 장애 인식 | 개인이 느끼는 장애인식 |
| | | 지역사회가 느끼는 장애인식 |
| | | 장애인 호칭 |
| 장애 발생 원인 | 사고로 인한 장애 | 기차, 차 사고로 인한 장애 |
| | | 군대 사고로 인한 장애 |
| | 낙후된 사회환경에 의한 장애 | 전기, 탄광 사고로 인한 장애 |
| | | 의료시설, 약 부족으로 인한 장애 동상, 영양실조 등으로 인한 장애 |
| 장애인의 생활과 지원 정책 | 장애인의 생활 | 혼자서 살아가기 힘든 장애인 |
| | | 무리지어 행패부리는 장애인 |
| | 장애인 지원 정책 | 생계수단 |
| | | 영예군인 제도 |
| | | 장애인 보조금과 경노동 공장 장애인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
| 북한의 특수교육 | 장애인 교육현황 | 학교를 못가는 장애인 |
| | | 장애인이 학교를 갈 수 없는 이유 |
| | | 그럼에도 장애인 교육은 필요함 |
| | 통일 이후 특수교육 지원방향 | 분리교육으로의 특수학교가 필요 |
| | | 교육에 앞서 복지 지원이 필요 특수교사 자질 확보를 위한 우대정책 필요 |

4. 연구의 진실성 및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분석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참여자 검토(member check) 및 전문가 검토(specialist check)를 실시하였다. 참여자 검토는 북한이탈학생이라는 연구참여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석 내용이 왜곡되거나 정치적으로 이해되지 않는지, 또 개인의 신변을 나타내는 용어와 표현들이 드러나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자가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면담을 실시할 때 이전 연구참여자에게 면담 전사본을 전달하였고, 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검토와 동의를 획득하였다. 또한 전문가 검토에서는 특수교육 박사학위 소지자 2명을 대상으로 녹음내용과 전사내용을 확인하고, 분석된 코드북과 코딩 자료, 결과 및 논의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연구자는 이 모든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연구 윤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참여자로 참가한 북한이탈학생 8명 중 6명이 북한 북부지방에 거주하여 지역적 편차가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베일에 가려져있던 북한의 장애인식과 장애인의 삶, 특수교육 실태에 대한 단면을 밝혀가는 노력은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해 현재로서는 최선이며 꼭 필요한 작업이라 여겨진다.

III. 연구 결과

1. 장애인의 실태

1) 장애인 현황

북한의 장애인 현황과 관련하여 분석된 의미단위는 ‘장애인의 수’, ‘장애의 유형’, ‘보조기기 사용’, ‘TV 매체 속의 장애인’, 총 4가지로 분석되었다. 장애인 수와 관련하여 대부분 연구참여자들은 북한에서 장애인을 자주 만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였고, 생활 곳곳의 동네, 장터 등에서 장애인을 자주 목격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북한 내 상당수의 장애인이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한 김동일, 이태수, 최종근(2005)의 연구와, 1999년 당시 약 76만 3천여명의 장애인이 있다고 기록된 북한인권백서(통일교육원, 2009), 장애인 비율을 5.8%로 밝힌 북한 패럴림픽단장 인터뷰(연합뉴스, 2012. 9. 10), 그리고 통계청의 북한통계(<http://kosis.kr/bukhan/index.jsp>) 홈페이지 자료 중 ‘활동제약’ 장애인구 수와(2008년 기준 1,766,373명)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시장에 가면은요, 장애인들을 많이 봐요, 북한에서는 꽃제비라고 하는데, 개들하고 또 팔, 다리 하나씩 없거나 둘 다 없는 장애인들도 시장에서 진짜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보는데……,

(연구참여자 A: 17~19)

장애인이 엄청 많죠, 사실……,군대에서 사고 난 사람, 일터에서 사고 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죠, 인원수로 따지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장애인이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구요, 어떤 사람들은 손이 팔목까지 없는 사람도 있고, 기계에 손이 잘려가지고……, 뭐 이런 발파하는데 맞아서 허리를 다치거나, 갱도가 무너져서 허리를 다치거나 이런 식의 사람들은 많지요,

(연구참여자 F: 14~22)

장애유형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장애유형으로 지체장애를 공통적으로 언급하였는데, 북한인권백서(통일연구원, 2015)에서도 지체장애인의 비율이 38.8%로 북한 장애인 중 가장 높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지적장애의 특징을 보이는 경우 정신장애 또는 신경장애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장애인이란 하면 팔, 다리 없는 사람요, 시장 장터에 가면은 꽃제비 애들 많이 봐요, 거기 보면 팔 없는 애도 있고, 다리, 발목이 없는 애들도 있고, 대부분 그런 애들이 많이 상하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G:297~300)

장애인? 장애인 이라면 저는 다리 못쓰는 거 하고, 정신질환자 그런 거 밖에 생각이 안나요, 아, 손발이 꼬여있어서 뭐든 힘든 사람들도 봤어요.

(연구참여자 D:159~160)

뭐, 머리가 떨어진다던지…….

북한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는 정신환자라고 하고, 우리네에서는 신경환자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그냥 그런 장애인이라고는 안했어요, 그런 호칭보다는 신경환자, 정신환자라고 했고.

(연구참여자 E:183~190)

일부 연구참여자지는 시각장애와 청각장애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지만 이를 장애로 인식하기보다는 노인질환의 일부이거나 특정한 인간유형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다.

앞 못 보는 사람도 거의 보지는 못했고요, 못 듣는 사람도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연구참여자 C:234~238)

아니, 그냥 말을 못하는 거 보고는 장애인이라고 하는 그런 거는 잘 못 들어봤어요, 그냥 병어리라고만 생각을 했지요, 그냥 팔, 다리 다친 거 보고는 장애인이라 인식을 했는데…….

(연구참여자 E:175~176)

장애인의 보조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지체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목발이 보조기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이를 구입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며 보통 나무를 잘라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휠체어의 경우 TV에서 본 적이 있지만 이를 실제 사용하는 것은 생각해보지도 못하였다고 하였다.

없어요, 못 봤어요, 휠체어란 것은 생각조차 못 해봤어요, 본 적도 없구요,
(연구참여자 D:167)

그냥 장애인이라는 게 여기 (다리가)절반인데 등그렇게 있더라구요, 걸지 못하고
목발 같은 거 하고 다니는 거, (목발은)그러니까 나무를 자기 혼자서 만든 거예요,
그냥 만드는 거죠,
(연구참여자 E:40~46)

TV 매체를 통해 나타난 장애인 관련 내용으로는 손과 발이 없는 장애인이 장애
를 극복하고 열심히 살아간다는 내용과 군대에서 사고로 장애인이 된 영예군인을 선
전하는 프로그램, 장애인 운동선수들을 소개하는 한 내용이 방송되었다고 하였다. 하
지만 이러한 장애인 관련 TV 방송은 흔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였으며, 그 유형 또한
지체장애로 한정되고 있었다.

거기는 좀 사상적으로 가니까, 만약에 어떤 영화가 있었냐 하면 팔이 한쪽이 없
어요, 팔이 없는데 시집을 가서 얘기를 놓고, 여기다 의족하고 공부하는데 의수로 공
부하고 그런 내용을 다룬 영화가 있었어요, 장애를 극복하고 열심히 산다는 그런 영
화……,
(H:203~206)

그런 것을 선전하는 것은 있어요, 영예군인이라고 해서 군대에서 다친 사람들이
나오면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것들이 가끔씩 TV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운동
선수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TV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D:112~114)

2) 장애 인식

북한의 장애인식을 탐색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 개인이 가지고 있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연구참여자가 거주했던 지역주민들의 장애인식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 개인이 가지는 장애 인식은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일부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는 단순한 연민의식에 지나지 않았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는 많이 부족하였다.

사실 이런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저도 북한에 있을 때 (장애인을) 병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불렀어요, 상대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하고
너무 다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인간 이하로 생각하고 있었죠,
(연구참여자 B:113~115)

일단 북한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저 옆에 지나는 병신이라든지 이상한 사람으로만 생각해서 그냥 인식자체가 없는 거라서요, 아무래도 교육을 받아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없어요,

(연구참여자 D:234~235)

연구참여자가 거주했던 지역주민의 장애인식 또한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마을단위 차원에서 이웃의 장애인에 대해 동정을 하거나 도움을 주려는 노력 또한 엿볼 수 있었다.

장애인들요 곱게 보지는 않았죠, 뭐 예를 들면 아침에 장애인을 보면 뭐 재수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길에 나갔는데 장애인을 처음으로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연구참여자 A:123~124)

그게 사람마다 좀 틀린 것 같은데요…… 동정해 주는 사람도 있고, 장애인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구요, 인민반이라는 게 마을에서 1반, 8반 이렇게 번호를 쳐서 놓았는데, 1반이 한 30세대 정도 한 반이 되는데, 그 때 8반에 장애인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다리를 못 걷고 혼자 힘들게 살았거든요.(중략)

인민반에서 반장이 이제 회의를 해요, 저 할머니 장애인인데 먹질 못하고 하니 도와주자, 한 집이 얼마씩 내서 도와주자, 돈이 있는 집은 더 내고, 가난한 집은 조금 내고 해서 모아서 할머니 도와드리고……, 장애인이라고 남의 일처럼 또 그렇게 만든 하지 않아요,

(연구참여자 C:288~297)

장애인의 생활과 교육을 책임지는 대상과 관련하여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 스스로 혹은 그 가족이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없어요, 만약에 내가 자식이 그렇다면 그냥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책임지고 돌보아 주는 거죠, 국가에서 뭐 따로 해주는 게 없어요, 뭐 보면 국가에서 그런 걸 뭐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건 개인집의 일이지 국가의 사정이 아니다 이러니까……,

(연구참여자 C:93~95)

가족들이 먹여 살릴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하반신 못 쓰는 사람들은 가족들이 먹여 살릴 수 밖에 없는 거죠,

(연구참여자 F:108~109)

그리고 장애인을 부르는 호칭을 통해 장애인식을 엿볼 수 있었는데 ‘병신’, ‘버버리 (병어리의 사투리: 필자 주)’, ‘난쟁이’, ‘꼭새’, ‘달기지랄병’ 등의 부정적인 용어사용을 통해 부정적인 장애인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솔직히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저희들은 장애아이를 보고 병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병신, 바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배려해 주거나 이리하지는 않아요,

(연구참여자 A:14~15)

애기 때부터 살던 동네에 등이 휘어진 분 있잖아요? 척추가 이렇게 휘어서 그래서 우리가 다 꼽새라고 불렀거든요,

(연구참여자 G:36~37)

2. 장애 발생원인

통일에 대비한 특수교육 기본방향과 지원정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장애 발생 원인을 탐색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연구 결과 북한에서의 장애 발생은 주로 다음과 같은 원인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 사고로 인한 장애

연구참여자가 경험한 북한에서 가장 흔한 장애유형은 지체장애였다. 그 중에서도 팔, 다리가 잘린 절단장애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는데, 그 원인으로서는 기차 및 자동차 사고, 군대 생활 중 발생한 사고, 그리고 전기 또는 탄광공사 등에서의 사고를 들 수 있었다.

일 하거나 기차나 차 사고로 팔 다리가 잘린 사람들이 많은데요, 또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에 가서 장애인 되어서 오는 경우도 많아요(중략)

기차사고가 북한에는 굉장히 많아요, 기차로 팔 다리 잘린 사람이 많고 또 전기 사고로 해서 팔 잃는 사람이 많았어요 사고가 많아요, 사고가……,

(연구참여자 A:25~26, 101)

쉽게 이야기 한다면, 군대에서 안전바 없이 어디 미장하다가 떨어진다면지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일도 많고, 발전소 하나 만드는데도 그냥 만들지 않잖아요, 깎고 뭐하면 발파하고 이러는데 그런 식으로 다친 사람들이 아마도 많은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군대의 복무기간이 길어서 그런 것도 맞고……,

(연구참여자 F:37~39)

2) 낙후된 사회 환경에 의한 장애

두 번째 주요 장애 원인은 낙후된 사회 환경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낙후된 의료시설, 이로 인한 동상, 사고, 질병 등 치료의 어려움, 영양실조 등의 요인에 의해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경제난으로 인한 난방시설 부족 및 이용의 어려움 등의 요인들에 의해 장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북한에서의 장애가 되는 원인은요, 제일 많은 게 영양실조예요, 아이들의 경우는요, 못 먹어서 실조가 걸려서 죽거나 병든 아이들이 많거든요, 아마 그래서 더 지지 못하고 멈춰버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연구참여자 A:89~92)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는 북쪽이고 춥잖아요, 다리가 얼어서 자른 사람, 그러니까 의료설비 때문이죠, 다리가 썩어나가면 치료할 수 있는데 (의료설비가 없어) 할 수 없이 자르는 거죠, 못 사는 거예요, 나라가 못살고 이러니까……,

(연구참여자 H:284~285)

제가 생각할 때는 태어난 다음에 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치료가 좋아서, 그러니까 괴사병 걸렸는데 치료가 좋아서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 괴사를 치료가 좀 안 좋으니까 팔을 자른 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요,

(연구참여자 G:79~81)

3. 장애인의 생활과 장애인 지원정책

1) 장애인의 생활

면담을 통해 나타난 북한 장애인의 생활 모습은 ‘혼자서 살아가기 힘든 장애인’, ‘무리지어 행패부리는 장애인’, ‘생계수단’의 의미단위로 분석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북한 장애인의 생활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장애인을 돌보아 주거나 지원해 주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생활 자체가 매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저신장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북한인권백서(통일교육원, 2015)에서 언급된 저신장장애인의 격리 실태에 대한 내용과 동일한 맥락을 제시한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장애인들은 너무나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북한에서 장애인들이 살아가면서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와는 배제된 사람, 다르다는 그런 인식이 어린 나이인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간

단해요,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가족 같은 경우에도 다 못 받아주는 거 같으니까요,
(연구참여자 D:17~20)

한국도 그러잖아요, 죽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심하게 죽이진 않는데 그냥 내다 버리거든요, 그 아이는 죽는 거나 죽은 사람이나 같잖아요, 만약에 통일이 되면 그런 거 좀 보듬어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연구참여자 B:33~34)

난쟁이 마을 같은데, 난쟁이라 말하면 또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지나가면서 봤는데 자전거도 타면서 그러시더라고요, 키는 되게 작는데,,
그리고 부부랑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 걸 본 적은 있어요,
(연구참여자 H:50~53)

또한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는 ‘무리지어 다니며 행패를 부리는 장애인’의 모습을 들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지체장애 또는 청각장애인의 무리들이 시장에서 먹을 것을 달라고 행패를 부리거나 도둑질을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람들을 때리거나 소란을 피운다는 점을 반복하여 언급하였다. 이 때문에 장애인을 무서워하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함으로써 거리를 두려한다는 점 또한 파악할 수 있었다.

영예군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군복을 입고서 막 무리를 지어 다녀요, 팔 한 짝 없거나, 다리 하나씩 없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폭행도 하고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먹을 거 달라 하고, 또 우리가 군대에서 이렇게 다치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막무가내로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안 되면 자판 같은 걸 뒤집어 었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무섭기도 했어요,
(연구참여자 A:29~33)

목발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보는 시선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신체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깎볼까봐 되게 싸움할 때랑 그걸로 사람을 치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잘못 건드리면 내가 피해를 보니까 사람들이 피하려고 하는 거죠,
(중략) 근데 거기는 경찰, 이런 게 없고 때리면 때리는가보다 하고 그냥 피하죠,
(연구참여자 G:159~170)

생계수단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이웃에게 먹을 것을 청하거나 흘려진 물건들을 주워오는 것, 도둑질 한다는 이야기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일부 장애인의 경우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 장사를 한다든지, 기차 등에서 짐을 옮기는 일, 영예군인으로서 영예군인 공장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는 그 유형이 청각

장애와 지체장애로 한정되었으며 그 외 장애유형의 특징을 가지는 사람들의 생계수단과 관련된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다.

자식이 3명인데, 부모가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는데, 그 사람들은 법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그 시장에 가서 도둑질 하고 몰래 몰래 남의 돈 훔치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살죠, 왜냐하면 함부로 그 사람들한테 못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못해요, 무서워가지고 그 사람들은 법이 따로 없으니깐, 군인들도 무서워 안 하거든요,
(연구참여자 E:93~95)

근데 장애아이들이 와서 뭐 달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한 번 두 번 주게 되는데 자꾸 먹고 살려고 하니깐 훔치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너무 안돼 보이긴 했는데, 그냥 한 번 두 번 그렇게 자꾸 애들이 그러면 사람들이 점점 그 아이들한테서 멀어지잖아요,
(연구참여자 B:21~23)

제 친구 매형도, 장사를 하거든요, 군대있을 때 다리가 없어졌는데 장사를 엄청 잘해요, 열차에서 짐도 엄청 큰 것도 몇 짝씩 올리고 하는데, 그런데 일반사람들이 그런 장사를 하려면 돈을 굉장히 많이 내야 하는데, (장애인들은) 돈도 안내고 막무가내로 해버려요, 그런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라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예요,
(연구참여자 H:176~179)

2) 장애인 지원 정책

북한에서 장애인을 지원하는 국가 정책에 대해서는 ‘영예군인 제도’, ‘장애인 보상제도 및 경노동 공장’, ‘장애인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으로 의미단위가 분석되었으며, 연구참여자도 공통적으로 군대생활 중 사고나 질병을 통해 장애인이 된 사람들을 지원하는 영예군인 제도에 대해 언급하였다. 영예군인 제도는 북한에서 장애인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지원정책으로 언급되고 있었으나, 그 실효성에 있어서는 지원의 폭이 크다는 의견과 형식만 있는 제도라는 의견이 함께 나타났다. 북한에서 군대생활 중 장애인이 되는 경우는 흔한 일로, 이는 10여 년에 이르는 긴 군 복무기간과 안전장비 부족, 강도 높은 공사 및 작업소요, 의료시설 부족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결과로 이해되었다.

흔히 북한말로 인민군대, 군대, 한국말로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서 다쳤어요, 그래서 내가 장애를 가졌어요, 그러면 영예군인 공장이라는 시설이 있어요,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우도 좋아요 거기는,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B:131~134)

252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7권 3호)

그렇죠, 영예군인도 (실질적인 지원혜택은) 제대로 안 나오구요,
장애인에 대한 지원 생각은 생각조차를 못해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연구참여자 D:152~153)

장애인 보상제도 및 경노동 공장과 관련된 내용은 작업장에서 일하다가 다친 경우 일부 보상이 제공된다는 것과 경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경노동 공장이 운영된다는 것이다.

일하다가 (장애인이 된 경우)있잖아요, 그런 거는 보상을 줘요, 나라에서……
그 만약에 석탄을 캐다가, 북한에는 석탄을 많이 캐는데, 석탄을 캐다가 다쳤다면
하면은 보상을 줘요 나라에서, 석탄이 중요하니까, 돈도 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장애인이 되면 조금 급수가 올라가요, 작게 조금,
(연구참여자 E:199~205)

(장애인 지원)정책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장이 있거든요,
지방산업공장이라 해가지고, 경노동이라 하거든요, 들어보셨나요? 경노동이라고
요? 영예군인공장과는 달라요, 가벼운 일을 하는 건데, 못이랑 이런 걸 찍으면 그걸
밀어서 올리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도 경노동 공장을 다니
셨거든요, 살짝 발 절고 팔이 없고 이런 분들이 가는 곳인데, 정책은 있을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H:223~226)

장애인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연구참여자들은 궁극적으로 국가에서 장애인의 생활과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장애인, 그래도 국가가 어느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부모의 책임은 한계가 있으니까, 국가가 어느 정도는 보장해야 할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D:223~224)

국가에서 책임져야죠, 당연히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국가가 그것을 인정을 안 하니까……,
(연구참여자 G:423~426)

4. 북한의 특수교육

1) 장애인 교육현황

북한의 특수교육 현황과 관련하여서는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장애인’, ‘장애인이

학교에 갈 수 없는 이유’, ‘그럼에도 장애인 교육은 필요함’의 3가지 의미단위로 분석되었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이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하였으며 또한 본 적도 없고 그러한 의식자체가 국가나 지역사회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2003년에 제정된 북한 장애인보호법 제19조는 ‘장애자의 육체적 정신적 특성과 장애류형에 따라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내오거나 맹인,聋아인, 지능 배양학교 같은 특수학교를 조직하고 운영한다’라고 명시하여 장애인 교육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 형태가 미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교육에 대한 말 자체를 들어보지 못했구요, 장애아 교육에 대한……,
(연구참여자 B:66)

저는 아직까지 그런 애들이 학교 가는 걸 못 봤어요, 들어보지도 못했고 말 못하는 애가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연구참여자 D:96~97)

없어요, 그런 건 들어 본 적도 없어요, 아예 그런 게 없고, 장애인이 학교 간다는 건 취급을 안 해줘요,
(연구참여자 G:244)

일부 연구참여자는 청각장애인의 교육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것은 수화로 대화하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내용과 청각장애 특수학교의 지리적 위치 등과 관련되는 것이었다. 이는 김동일, 배성직(2001)의 연구와 북한인권백서(통일연구원, 2015)에서 나타난 북한 청각장애인학교 현황의 내용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구체적 경험 자료이다.

그거 여기처럼, 한국처럼 수화로 말을 하더라고요,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말 못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걸 보면요, 막 웃고 떠들고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배웠는지도 모르겠어요,
(연구참여자 E:105~107)

그런 사람들 교육을 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어요, 라진 아시나요? 북쪽 제일 끝인데 라진 선봉 이라는데요, 거기에 그렇게 (청각장애인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중략)
제가 수화 ‘기역’, ‘니은’, ‘디근’, ‘리을’이런 것을 그거 하는 분한테 차를 배울 때, 제가 조수석에서 배웠거든요, 실제로 그 분은 청각장애인의 말을 잘 알아들어요, 말을 하는데 다 알아듣고, 같이 대화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교육이 있다는 내용을 들었어요, 신기하다 그랬죠,
(연구참여자 H:55~95)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이 학교를 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장애인이 학교에 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과 정책이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장애인은 학교에 다닐 수 없고 배우지도 못할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함께 학교를 다니며 내야 하는 비용이 상당하다는 재정적인 이유도 그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장애인에게 있어 교육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장애인은 일단 북한에서는요 장애인 관련 기반이 하나도 없어요,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기반이 없어요, 관심도 없구요 장애인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거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연구참여자 A:157~159)

학교에서 군대들한테 바치는 뭐 뭐 해가지고 1년에 바치는 돈이 엄청 많이 나가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거 내는 게 힘들어서 학교를 잘 안 보내요, 집이 어려운 애들은, 저희같이 성성한 애들도 그런데, 그런데 장애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도 못 내는데, 아이들한테도 눈총 받고, 선생님한테도 눈총 받고 해서 그래서 아마 다니기 힘들지 않을까……,

(연구참여자 G:233~236)

이 사람한테 맞는 교육을 시켜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부터 학교에 들어가서 그 때부터 교육을 시켜주면서(중략)

장애아이들은 차라리 한글이나 좀 가르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가르쳐서 익숙하게 하는데, 일 하나 배워도 딴 사람이 한 달 배울 거를 1년, 2년 배워야 되잖아요,

(연구참여자 B:466~468)

2) 통일 이후 특수교육의 지원방향

연구참여자들은 통일에 대비한 특수교육의 지원방향에 대해 '분리교육으로서의 특수학교가 필요', '교육에 앞서 복지 지원이 필요', '특수교사 자질 확보를 위한 우대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만약에 교육을 받게 된다면야, 학교 같은 걸 지어서 장애인들끼리 교육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기반도 없고요, 의식이 없어서 일반학교에 있으면요 진짜 아무도 안 도와줄 거예요, 왕따 알죠? 왕따 그런 거나 놀릴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A:170~173)

저는 그런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사람들이나 학교가 따로 있어서 따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일반 애들하고 같이 시키면 왕따를 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교육수준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본인이 공부를 잘하고 이르면 어떨지는 몰라도, 떨어지거나 이르면 따로 시설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겠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는 하지 못하지만요,

(연구참여자 D:215~218)

교육에 앞서 복지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장애인의 생활과 직결되는 복지 문제가 교육보다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며, 그 이후에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보듬어야 하잖아요, 그런 것과 연관해서 사회복지과를 먼저 생각하게 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시급하고 그게 안 되니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많잖아요, 장애인이 되는 것도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많아서……사회복지하고 특수교육하고 같이 생각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연구참여자 D:257~262)

그러니까 교육은 해줘야 되죠, 학교에서만 교육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니면 나라에서 방을 하나 내고 체계적으로 똑같이 배워줄 수 있는가가 문제이지 굶이 장소는 문제가 아니잖아요.(중략)

이 사람들한테 주어져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생활적인 경제거든요, 일단은 배워 주는데 먹여주기까지 해야 되는 거죠, 먹여주면서 교육을 시켜줘야 해요, 굶이 일반 학교든 대안학교든 상관없어요, 일단 1차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시작할 때는, 그리고 2차적으로 이어질 때는 그 사람들도 부모들도, 형제들도 있을 테니까, 경제적으로 일어서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이때부터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죠,

(연구참여자 F:254~258, 265~272)

특수교육교사의 자질과 관련하여서는 교사의 인품과 인내심, 장애인을 잘 아는 자질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특수교육교사를 위한 우대정책 또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을 교육하는 교사가 일반교사에 비해 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특수교육교사를 위한 우대정책이 있어야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수교사요 아무래도 북한에서는 사람들이 장애인을 무시하고 교육자체를 생각을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인내심도 있어야지 그런 일을 잘 할 테니까요, 우선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연구참여자 A:189~191)

특수학교 선생님이요, 아무래도 장애인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우선은 힘이 들 거잖아요, 힘든 일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월급 같은 거를 많이 주면 힘들어도 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선생님이 그냥 학교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오면은 사람들의 생각도 좋아질 것 같아요,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요,

(연구참여자 C:381~384)

월급 이런 것도 그렇지만, 휴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한데, 휴가를 더 많이 주는 거죠, 그리고 특수교육 선생님들을 많이 양성해서 너무 어렵게 하지 않게, 말하자면 한 학급에 다섯 명이지만 선생님은 한 명이잖아요, 그것을 두 명으로 한다면, 이런 점에서 우대를 하면서 휴가를 많이 주는 우대를 주는 거죠,

(연구참여자 H:354~360)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학생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북한 장애인의 삶과 특수교육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질적으로 탐색한 연구이다. 이를 통해 북한 장애인의 삶과 특수교육의 단면을 밝히고 한국 특수교육분야가 통일을 대비한다는 관점에서 그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면담을 통해 분석된 코드의 범주는 24개의 의미단위와 8개의 하위범주, 4개의 상위범주로 분류되었다. 4개의 상위범주는 ‘장애인의 실태’, ‘장애 발생원인’, ‘장애인의 생활상과 지원정책’, ‘북한의 특수교육’으로, 여기에서는 이들 범주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의 실태와 관련된 특징으로 연구참여자들은 북한에서 장애인을 자주 만났다고 하였고, 가장 많이 접한 장애유형으로는 지체장애를 공통적으로 언급하였다. 생활 주변의 동네와 장터 등에서 장애인을 자주 목격하였으며, 그들이 목격한 장애인 대부분은 손 또는 발이 절단된 지체장애인이라는 것이다. 또한 지체장애인이 사용하고 있는 보조기기는 목발이 대부분이었으며 그것의 대부분은 직접 나무를 깎아 만든 것이었고, 휠체어와 같은 보조기기는 TV 매체를 통해 운동선수들이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은 있으나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북한에서 장애인을 부르는 용어인 ‘병신’, ‘사람이 아닌’, ‘인간 이하’, ‘썩새’, ‘재수없는’ 등과 같은 용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일부 도움을 주거나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연민의식에 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과 함께 지내는 마을단위에서는 동정심을 표현하

거나 도움을 주려는 자발적인 노력이 부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장애 발생의 원인은 많은 경우 후천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와 낙후된 사회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많은 장애인을 발생시키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고는 의료시설이나 교통, 통신시설의 열악함으로 인해 영구적인 신체장애로 고착되는 경우가 많았고 긴 군대생활 동안 장애인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세부 의미단위로 분석된 기차, 자동차 사고, 군대사고, 전기·탄광 작업 사고, 동상, 영양실조 등의 요인들 또한 결국 의료시설과 치료약 등의 부족으로 인해 영구적인 장애로 고착된 경우이며, 그 이면에는 낙후된 교통, 통신시설이라는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 후천적 장애 발생 원인에 비해 선천적 장애 발생 원인과 관련된 경험과 인식은 드물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경험도 영양실조에 의한 후천적인 요인으로만 언급되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선천적 장애인 생존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14년 TV 방송에서 의사 출신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장애아동이 태어날 경우, 부모와 의사들이 장애아동을 엮어 나무 밑에 묻어버린다는 증언(MBN 황금알, 2014. 3. 3.)과 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를 엮어 숨이 끊어질 때까지 방치하거나 버린다고 밝힌 김석항(2011)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에 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은 향후 북한 특수교육의 지원방향과 관련된 후속연구에서 논의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겠다.

셋째, 장애인의 생활상과 관련하여 혼자 살아가기 힘든 장애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일부 생계를 위해 장사를 할 수 있는 지체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장애인 생계는 그 가족이 책임지고 있었다. 더불어 지체장애와 청각장애인 무리들이 시장에서 먹을 것을 찾으며 행패를 부리거나 도둑질을 하는 모습들도 엿볼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무섭거나 피하고 싶은 사람들로 확대·고정되기도 하였다.

장애인 지원정책으로는 영예군인 제도가 대표적인 정책으로 언급되었다. 이는 군대에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인이 된 경우 국가가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인데, 그 실효성에 있어서는 지원의 폭이 크다는 의견과 형식적으로 존재할 뿐이라는 의견이 혼재되어 있었다. 또한 인민반 작업 등에서 사고로 장애인이 된 경우에도 장애인 보상제도 및 경노동 공장 등에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나, 이 또한 제한적인 지원일 뿐이라 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궁극적으로 국가에서 장애인의 생활과 교육 등을 책임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북한의 특수교육과 관련하여 장애인이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그럴 필요도 없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떡잇감’, ‘왕따’ 등의 용어를 통해 장애인이 학교에 다니는 것은 매우 힘들 것이라고 하였으며, 실제로 학교에 다니기 위해 나라에 내야 하는 돈이 많기 때문에 학교를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통일 이후 북한에서 특수교육이 시작된다면, 특수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특수학교를 세워 분리교육으로부터 시행해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수학교에서는 장애학생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할 것이며, 통합교육을 통일 직후 바로 시작하게 된다면 교육시설, 장애인식, 교육정책 등의 요인으로 인해 장애학생 및 비장애학생 모두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북한에서의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특수교육 기관의 구축과 함께 병행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육에 앞서 생존과 직결되는 복지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훌륭한 인품과 인내심, 장애에 대한 깊은 이해가 훌륭한 특수교육교사의 자질로 언급되었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특수교육교사를 위한 월급, 배치, 휴가 등의 우대책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남한 특수교육의 방향성 모색을 위한 시사점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적인 장애인식의 개선을 중점으로 하는 특수교육적 지원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더불어 인도적 차원에서 보조기기 지원 등과 같은 지원 노력이 다양한 방면에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선천적 장애인의 생존권 신장과 후천적 장애인 발생요소 감소를 위한 의료 기술과 장비, 치료약 등의 지원과 협력이 관계부처와 기관 간의 연계를 통해 시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 장애인 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시 특수교육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등의 관련 분야가 서로 협력하여 장애인의 생존권과 교육권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와 관련하여 북한 특수교육의 지원 방안 또는 통일 이후의 남·북한 특수교육 체제 구축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정책 및 기초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시도될 필요가 있다. 일반교육 분야에서는 통일 후 교육통합에 관련된 정책연구들이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수교육 분야에서도 통일을 대비하여 이와 같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분단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역사적 과제와 인류애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며, 나아가 한국 특수교육의 외연을 확장하는 기회로서의 가능성 또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곽병선, 이종태, 김재춘, 김두정 (1998). **통일대비 교육과정 개발방안 연구**. 서울:한국교육개발원.
- 김동일, 배성직 (2001). 북한의 특수교육: 역사적 전개와 현황에 대한 이해. **특수교육연구** 8, 27-46.
- 김동일, 이태수 (2007). 북한의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42(3), 149-165.
- 김동일, 이태수, 최종근 (2005). 북한의 장애인 교육법에 대한 탐색적 연구-‘장애자보호법’의 내용과 특성. **특수교육학연구**, 40(1), 45-64.
- 김미선, 박중휘 (2014). 시각장애 대학생의 진로와 취업 지원 경험과 인식. **한국시각장애교육 재활학회**, 30(4), 213-232.
- 김병하 (2011). **한국특수교육론-우리나라 특수교육(학)의 정체성**. 경산: 대구대학교 출판부.
- 김석향 (2011). 북한 장애인의 일상생활 현황: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북한연구 학회보**, 15(1), 85-110.
- 김정원, 김지수, 신동훈, 양희준, 김선, 강구섭, 박수현, 나귀수 (2015). **남북한 학제 비교 및 통합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정원, 김지수, 최유림, 이슬기 (2014). **남북한 교사 역할 비교 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태완, 박재윤, 한만길, 백성준 (1991). **남북한 교육통합 정책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형재 (2009). 남한과 북한의 특수교육 비교 연구. 석사학위 논문, 공주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동아일보 (2015.01.22.). “통일연구원장, 통일 대박 위해 남북통합센터 2월 설립”. <http://news.donga.com/3/all/20140122/60320385/1>
- 매일경제 (2014.01.23.). “다보스 올려퍼진 아리랑...‘통일한국’ 꿈을 노래하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76430>.
- 박재윤, 허병기, 백성준 (1992). **통일에 대비한 교육정책 연구(1): 통일 단계별 정책 방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박지연, 김남희, 손유니 (2013). 장애학생 가족과의 협력과 가족지원에 관한 특수교사의 경험과 인식. **교원교육**, 29(4), 131-156.
- 송현진, 진성미 (2015). 북한이탈주민의 평생학습 참여성과와 교육요구에 대한 질적 분석. *Andragogy Today :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Vol.18 No.4, 1-28.
- 연합뉴스 (2012.09.10.). “北 패럴림픽단장 "조선 장애인 비율 5.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806454>.
- 오기성, 박창언, 신호숙 (2008). **남북한 통합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시안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통일교육연구소.
- 윤중혁, 이석희, 신호숙, 이대현 (2006). **북한 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윤중혁, 이찬희, 이석희, 신효숙, 박영은 (2007). **통일 시대에 대비한 북한 교육 지원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윤중혁, 이찬희, 조정아 (2008). **남북한 교육 체제 변화와 통합 전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윤진 (2014). 통일 대비 영유아교육·보육 통합 방안 모색, 2014년 제1차 육아선진화 포럼 -통일 대비 육아지원 방향 및 정책 과제 세미나자료 2-14-04. 육아정책연구소, 서울.
- 이종규 (2006).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교육과학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인보호법 (2003년 6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835호).
- 청와대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2014. 01. 06). http://www.ytn.co.kr/_ln/0101_201602241748356038.
- 청와대 대통령 연설문 (2014. 03. 28). “드레스덴 공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대통령 연설”. http://www1.president.go.kr/president/speech.php?srh%5Bpage%5D=11&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5327.
- 청와대 대통령 연설문 (2014. 12. 08). “제7차 세계정체회의(WPC) 기조연설”. http://www1.president.go.kr/president/speech.php?srh%5Byear%5D=2014&srh%5Bmonth%5D=12&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8716.
- 최선희, 이승희 (2008). 한국소설에 나타난 장애인관 연구-1980년부터 2007년까지를 중심으로-. **특수교육학연구**, 43(3), 101-120.
- 최영표, 한만길, 홍영란, 박재윤 (1993). **통일에 대비한 교육정책 연구(2): 통일 한국 교육 제도의 새 모형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통일연구원 (2009). 「북한인권백서」. 서울:통일연구원.
- 통일연구원 (2015). 「북한인권백서」. 서울:통일연구원.
- 통일연구원 보도자료 (2014. 01. 23.). 통일연구원, ‘남북통합연구센터’ 설립. http://www.kinu.or.kr/news/news_09_01.jsp?page=1&num=21&mode=view&field=&text=&order=&dir=&bid=KNNOTICE1&ses=&category=
- 한만길, 강구섭, 권성아, 박재윤, 양승실, 조정아 (2012).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통합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만길, 김창환, 정지웅 (1998).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대책 연구(2)**.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만길, 이명준, 양희인 (1997).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대책 연구(1): 통일 이전 민족통합의 과제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홍정숙, 김금숙 (2014).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대한 거점학교 운영 담당 특수 교사의 인식. **특수아동교육연구**, 16(4), 103-129.
- KBS 뉴스 (2015.07.12.). “보건사회연구원, 통일 사회보장센터 설립 추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11397&ref=A>
- MBN 방송자료 (2014.03.03). 황금알 96회, “북한의 소문과 진실(1)”.
Seidman, I. (2009). **질적 연구방법으로서의 면담**(이승연 등 역). 서울: 학지사.

A Study of North Korean Defector Students' Experience and Perception of the Life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Special Education in North Korea

An, Sangkwon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Hong, Jeongsuk

Daegu University

<Abstract>

In the present stud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eight North Korean defector students, who now live in South Korea, to investigate their experience and perception of the life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special education in North Korea. Moreover, the study was aimed at examining the life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a few aspects of special education in North Korea and providing the baseline data that explore the future directions of special education from the vantage point of unification preparation. The codes that were analyzed through the interviews were classified into 24 meaning units, 8 subcategories and 4 categories.

The four categories were the 'current conditions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causes of disabilities', living conditions of and support policies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special education in North Korea', and the present study proposed the significance of the categories and discussed their implications.

Key Words :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n North Korea, North Korea's Special Education, North Korean Defector Students, Special Education after Unification

논문 접수: 2016. 06. 07 심사 시작: 2016. 06. 10 게재 확정: 2016. 07. 12